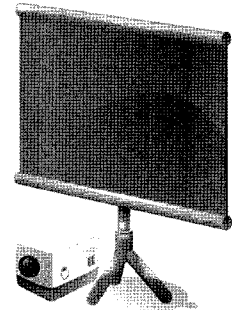


제3차 한·중·일 정보보호 표준화 회의

염홍열 | ITU-T SG17 부의장,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1. 머리말

한중일 3국 간에 정보보호 표준화 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SWIS: Standardization Workshop on Information Security)이 중국 시안에서 2009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올해 3번째로 열리는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은 3국 간의 정보보호 표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중점관심주제(HIS: High Interest Subject)를 선정하고, 각 관심주제별로 3국에서 자국의 현황을 제시하고 입장을 반영한 주제를 발표하며, 각 중점관심주제별로 질의/응답을 통해 공통의 표준화 이슈를 발굴해 신규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할 추가적인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회의이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한중일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의 경과를 살펴보고 제3회 한중일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에서 합의된 주요 합의사항을 다루며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 한중일 정보보호 표준화 회의

2.1 제1회 표준화 회의

‘제1회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SWIS 2007)’은 2007년 11월 25일에서 26일까지 숙명여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중일 정보보호 표준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회 워크숍은 한국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일본 총무성(MIC)과 중국 정보산업부(MII) 등이 후원했다. 제1회 워크숍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홈네트워크 보안 표준, 바이오인식 표준, 스마트카드 보안, 아이덴티티 관리, RFID/USN 보안, 센서네트워크 보안, 무선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보안, 멀티미디어 보안 등의 중점관심 분야의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정보보호 표준화 관련 기고문 15편이 발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정보보호 표준화 현황, 아이덴티티 관리 분야의 국제 표준화 동향, OTP 통합인증센터 소개, 입국심사 보안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전자여권용 생체인식 보안솔루션, 전자여권 분석 및 생체인식 시험기법, ITU-T 홈네트워크 보안 표준화 동향 등의 7편을 중국 측에서는 보안 프로세스 표준화, 스웬 대응, 미디어 보안, NGN 보안 등 4편을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일본 정보보호 표준화 현황, 암호기술 표준화 현황, 생체인식 보안 표준의 현황과 전망, 역추적 연구의 현

황 등 4편을 발표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제2회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한중일 3국 간의 암호 알고리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요 성과였다. 공식 웹사이트는 <http://hnrc.cau.ac.kr/swis2007/program.htm>이다.

2.2 제2회 표준화 회의

‘제2회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SWIS 2008)’은 2008년 12월 4일에서 5일까지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한중일 정보보호 표준화 전문가 36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2회 워크숍은 일본국립정보통신연구소(NICT)가 주관하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CC), 일본 총무성(MIC), 중국 정보산업부(MIIT) 등이 후원했다. 제2회 워크숍(<http://www2.nict.go.jp/y/y211/swis2008/>)에서는 IP 역추적, 봇넷 대응, 아이덴티티 관리 기술, IPTV 보안, 이동통신 보안 등의 중점관심분야에서 16편(한국: 7편, 일본: 6편, 중국: 3편)이 발표되었다. 제2회 표준화 회의에서는 제3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3 제3회 표준화 회의

‘제3회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SWIS 2009)’은 2009년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한중일 정보보호 표준화 전문가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3회 워크숍은 중국통신연구원(CATR)이 주관하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CC), 일본 총무성(MIC), 중국 정보산업부(MIIT) 등이 후원했다. 제3회 워크숍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아이덴티티 관리 기술, 사물통신 보안, 스마트 그리드 보안, 사이버 보안, 의료정보보안, 모바일 보안 등의 분야에서 18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필자가 ‘한국 정보보호 표준화 현황’, ETRI 나재훈 박사가 ‘IPTV 보안 표준화 동

향’,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인경 선임연구원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아이핀 서비스’, ETRI 조상래 박사가 ‘사용자 중심 아이디관리 기술 및 표준화 동향’, ETRI 김건량 선임이 ‘역추적 기술 및 표준화 동향’ 그리고 ETRI 안재영 박사가 기계 대 기계(M2M: Machine to Machine) 네트워크 보안 등의 주요 중점 표준화 기고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중점관심주제별로 질의응답을 통해 공통의 이슈를 발굴하고, 많은 협력 가능 아이템을 도출했다. 공식 웹 사이트는 <http://ritt.catr.cn/swis/main.html>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한중일 표준화 협력회의(CJK)에서 정보보호 작업반에 대한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향후 3국의 정부부처와 표준화 기구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시작한다.
- 각 중점관심 분야의 한중일 3국 간의 정보보호표준화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등과 같은 신기술 보안 분야의 ITU-T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한다.
- 지난 3회에 걸친 한중일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의 결과 보고서를 마련한다.
- 제4회 한중일 표준화 워크숍을 2010년 10월 전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3. 맺음말

한중일 3국 간 새로운 차원의 정보보호 표준화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u-Health 보안, 아이핀 등의 디지털 아이디관리 등의 중점관심주제로 3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

고, 3국의 견해와 입장 그리고 현황을 담은 발표가 이루어졌다.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연동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표준화가 국가 또는 단체 간 협상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출물이므로 국가 간의 협력은 표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한중일 정보보호표준화워크숍은 3국 간의 정보보호 표

준화 전문가들 간의 정보공유와 국제전기통신연합/ISO에서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 워크숍의 성격을 공식화할 필요성을 3국 전문가가 인식해서 기존 공식 한중일 표준화 회의 산하에서 정보보호 작업반을 신설 제안을 합의했고,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보보호 글로벌 표준화 추진을 위해 한중일 3국 간에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TTA

정보통신용어해설

IPTV 2.0

IPTV 2.0 [방송]

IPTV의 차세대 버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로도 원하는 콘텐츠는 무엇이나 최적 품질로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개념이며 개방형 접속을 지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IPTV 기능이 있다.

